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무등현대미술관 5월31일까지 '역사는 없다...' 전
설치 등 9명 참여...영화 상영·편지쓰기·토론회
7월2~15일 나눔의 집 '할머니의 내일' 기획전도



이인성 작 'Expressed 2'

이성웅 작가의 설치 작품 '잊혀 지지 않는 기억'은 스테인레스로 제작해 전시장 벽면에 부착한 소녀상의 이미지와 그 앞에 놓인 작고 하얀 자가 인상적이다.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함께 만들어간다. "할머니들 건강하세요." "잊지 않을게요" 관람객들은 작품을 보고 느낀 마음을 '노란 나비' 종이에 정성스레 적어 붙여 두었다.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과 협력해 '역사는 없다. 2019 위안부 피해자' (5월31일까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적 사실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들이 겪은 사회적 편견과 고통, 2차 피해 등을 다양한 시각적 작품으로 해석한 기획이다.

이번 전시에는 설치·회화·조각·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조각가 고(故) 구본주 작가의 '갈춤' 두점은 작은 크기지만 강렬하다. 날카로운 표정을 담은 이미지와 역동적인 몸동작은 흙의 질감과 어우러져 투박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준다.

이인성 작가의 'Expressed 2'에 등장하는 인물상은 왜곡돼 있다. 흘러내리는 물감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누군가의 절망과 절규를 보는 듯하다. 리얼천 작가의 사진작품 '안식의 문'과 '생명'은 간절한 희망의 빛을 상징하며 성혜림 작가의 '트라우마'는 세상에 상처받은 이의 아픔을 어린이가 뒷모습을 통해 보여준다. 김명우·김재영 작가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촬영한 이옥선·강일출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과 '나눔의 집'에 전시된 증거물 등을 편집한 미디어 작품을 전시 중이다.

그밖에 엄기춘·장원석·최희원 작가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영화



구본주 작 '갈춤'

'귀향 -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매일 두 차례(오전 11시·오후 3시) 상영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편지를 써보는 '별처럼 반짝이는 소녀에게 쓰는 편지' (20일·27일·5월 4일 오전 10시30분)도 개최한다. 그밖에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제2전시실에서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2차적 피해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한편 오는 7월2일부터 15일까지는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직접 부른 노래,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영상을 만나는 나눔의 집 기획전 순회 전시 '할머니의 내일'전이 열린다. 문의 062-223-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벨 콰르텟' 2년만에 정기 연주회

16일 광주 금호아트홀

2015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아벨 콰르텟'(사진)이 2년 만에 정기 연주회를 연다.

'아벨 콰르텟' 세 번째 정기 연주회 '초심'이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아벨 콰르텟은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박수현, 비올리스트 김세준, 첼리스트 조형준으로 구성된 현악사중주단이다. 결성 직후부터 아우구스트 에버딩 국제 콩쿠르 2위,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 리옹 국제 실내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 등을 연달아 수상하며 한국 현악사중주단의 실력을 알렸다. 히브리어로 '생명력'을 뜻하는 '아벨' (Abel)이라는 이름

에 걸맞게 이번 연주회에서는 7년간 따로 또 같이 활동한 이들의 새로운 시도가 펼쳐진다.

이들은 주로 연주해 온 독일 고전음악에서 벗어나 쇼스타코비치부터 베토벤, 드뷔시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6번 내림나장조 작품 18-6'으로 문을 열고 드뷔시 '현악사중주 사단조 작품 10'을 무대에 올린다. 이들은 결성 초기부터 베토벤과 드뷔시 연주를 꼽아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 내면의 처절한 감정을 극적으로 표출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3번 바장조 작품 73'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전석 3만원(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동감 가득...어떻게 작업했을까 화순 소소미술관 30일까지 정용규전



'그리움'

서양화가 정용규 작가의 이번 전시작은 개나리·벚꽃 등 봄꽃이 피어나는 화사한 봄과 잘 어울린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화순 소소미술관으로 가는 도로엔 벚꽃이 한창이고, 카페와 소박한 야외 조각 공원 등을 갖춘 미술관은 전시장으로 안성맞춤이다.

정용규 작가가 '빛과 희망의 노래'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정 작가의 작품은 무엇보다 재료와 기법이 눈에 띈다. 일반 서양화 작품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법이라 작품 앞에 서면 "어떻게 작업했을까" 자연스레 궁금증이 일어난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는 조개 껍데기다. 20여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파편으로 잘라진 조개 입자를 캔버스에 발라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작품을 보고 있으면 무엇보다 입체감이 도드라지며 조명에 따라 다채로운 화면을 만들어낸다. 또 입자를 캔버스 전체에 골고루 바르기도 하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인물 등 화면에 등장하는 소재 일부에 두텁게 발라 입체적인 윤곽선을 강조해 부조 작품

같은 느낌도 준다.

전시작 가운데 '햇살 고이는 뜨락', '그리움' 등의 작품에서 화폭에 등장하는 장독은 조개 입자를 활용하는 기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재들이다. 흙을 구워 완성되는 장독이 갖고 있는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 생동감을 준다.

정 작가의 또 다른 특징은 화면을 가득 채우는 화사한 색감이다. 이번 전시작이 산수유, 매화 등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은 터라 화려하고 생동감의 색채가 주는 장점이 도드라진다. 또 구례 산수유 마을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속에는 나뭇가지와 소 치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도 고스란히 담겨 평온함을 준다. 전시에서는 그밖에 부엉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정 작가는 1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미술상운영위원, 그룹 새벽, 신작전회, 토만사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375-199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하 문화원)이 최근 2017~18년의 지속가능경영 현황 및 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 기준에 맞춰 작성한 것으로, 2015년 아시아문화원 설립 이후 처음 발간했다.

그동안 아시아문화원은 '세계 최고의 아시아문화콘텐츠창제작 PARTER'라는 비전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한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 확립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성, 글로벌 콘텐츠, 국제교류, 대중화, 지역진화 및 참여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담아내왔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연, 전시, 교육 및 축제와 행사 등 총 479건의 콘텐츠를 제작 완료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은 크게 연구, 공연, 교육, 전시, 융복합콘텐츠 창제작, 교류협력 부문에서 실행했다. 연구는 연구성과 관리와 출판, 콘텐츠 기획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하며 공연부문에서는 브랜드 공연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공동기획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은 현장중심 전문인력 교육과 기획 운영에, 전시는 콘텐츠 실험성 및 다양성 실현을 위한 기획과 창제작 지원에 보다 더 관심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 콘텐츠는 창의적 관점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대형 길러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문화원이 앞으로 사회 가치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아시아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